“다음 달라이라마는 중국 이외서 나온다”

새로운 회고록서 “자유세계” 언급
입적 후 자유 투쟁 대한 염원 밝혀
9월, 90세 생일에 계획 발표 키로
中 “달라이라마, 정치 망명자” 비판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최근 다음 후계자에 대해 중국 밖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다음 후계자에 대해 중국 밖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밝혀 화제다. 지금까지 달라이라마는 후계자에 대해 티베트 이외, 자신의 망명처인 인도에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해왔으나 중국 이외의 자유세계에서 탄생한다고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11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11일 출간된 회고록 ‘목소리 없는 자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the Voiceless)’에서 “(달라이라마 제도에서) 환생의 목적은 전임자의 일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래야만 달라이라마의 전통적인 사명인 ‘보편적인 자비심의 대변자,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티베트인의 소망을 구현하는 티베트의 상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에도 후계자가 티베트가 아닌 인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라마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이 아닌 티베트인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이야기했으며, 폐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이번 회고록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나 “전세계 티베트인들은 나(달라이라마)의 사후에도 환생 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정부가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자신들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임명한 후계자는 티베트인들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라이라마는 또 책에서 “나의 입적 이후에도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서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억압으로는 자유를 향한 염원을 결코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7월 자신의 90세 생일 무렵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달라이라마의 신저에 대한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종교로 자신을 숨기고선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일축했다. 또한 “티베트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달라이라마의 언동은 실질적인 티베트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르면 달라이라마가 사망하면 그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믿는다. 현 달라이라마 역시 두 살 때 전임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지명됐다.

대만 불교계, ‘독단적’ 국회의원 해직 요구

국민당 소속 의원 해직 움직임
1500명 서명 중 출가자 200명



불자들에게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졍딩스님(좌)과 차오칭청 전 회장(우).
사진출처=대만 중앙통신사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국민당에 의한 독단적인 법안과 예산안의 강행채결이 잇따르면서 국민당 소속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의 해직을 요구하는 대만 시민들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만 불교계도 서명운동에 동참, 불자들의 참가를 호소해 화제다. 지난 3월 14일 대만의 ‘대만 중앙통신사’는 불교계의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 보도했다.

중대만교수협회에서 시작한 이번 불교계 서명운동은 ‘불제자 호국선언-대만수호 강권저항’이라는 구호로 진행되고 있다. 3월 14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졍딩(正定) 스님은 “오늘날 대만 불교계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행복한 생활이 철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앞서 불교를 구하고 중생들을 도와야한다” 호소했다. 스님은 “불교도는 정치를 멀리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중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무외시’를 베풀기 위해선 불교도들이 어떻게 더 이상 수수방관 하겠느냐”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 법률상 입법위원의 해직청구에는 선출선거구 내의 유권자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발의인의 서명을 모은 후, 유권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명인의 서명을 모으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찬성표가 선출선거구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면 성립한다. 현재는 연명인들의 서명을 모으는 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서명운동의 참가자이자 전 연화전자(UMC)회장을 역임한 차오칭청은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을 진행해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을 통해 입법원을 장악하려했다”면서 “대만 시민들은 입법위원의 해직을 완수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대만인의 주장과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운림과기대학의 지안탄량 조교수는 “현재까지 1500명의 불자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가했음 이중 200명은 스님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길을 추구하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앞장서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불교도의 책임”이라고 결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100년 전 발굴 불두 몸통과 한 몸 된다

앙코르 사원 ‘미스터리’ 해결
재구성 후 대중에 공개하기로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 복합단지의 100년 된 미스터리가 풀렸다. 100년 전 발굴된 불상 머리 부분과 2년 전 발굴된 불상 몸통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써 부처상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고고학자들은 현재 부처상을 재구성해 대중에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인문학 및 역사 전문 매체 더 콜렉터닷컴의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발견된 5피트 높이의 불상의 몸통은 12~13세기 사이 크메르 제국 당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크메르 제국(802년~1431년)은 한때 동남아시아 본토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중세 힌두-불교 문명의 대제국이다.

이 몸통은 바이욘 사원(Bayon) 제작 양식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됐다. 바이욘 사원은 앙코르 톰 내에 위치한 유명한 불교 사원으로, 수백 개의 얼굴 조각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당시 크메르 제국의 예술적 스타일과 종교적 상징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몸통은 29개의 추가적인 파편과 함께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동일한 부처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몸통은 100년 전 발견된 불상의 머리와 본래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상의 머리는 1927년 캄보디아의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발견돼 현재 프놈펜의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부처상의 몸통은 머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15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굴됐다.

이번 발굴에 참여한 네스 시몬(Neth Simon)은 “광학 전자 스캔을 통해 머리와 몸통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처상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오른쪽 손만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발굴단은 현재 불상 공개를 위한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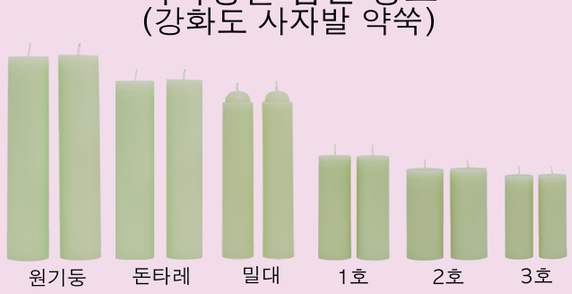
한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로, 크메르 제국 당시인 12세기 초에 건설됐다. 이 사원은 원래 힌두교 신인 비슈누에게 바쳐졌으나, 후에 불교 사원으로 변모했다.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9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유물·유적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 규모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진제공=더 콜렉터닷컴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PC 팜 원통초


연꽃향을 담은 양초


밀랍향을 담은 양초


밀납향을 담은 초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